

# 2011 대학수학능력시험

## 제2외국어 / 한문영역 (한문) 해설지

### [정답]

문 항	1	2	3	4	5	6	7	8	9	10
정 답	②	③	⑤	④	①	①	⑤	⑤	④	④
문 항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정 답	③	④	④	③	②	①	②	③	①	①
문 항	21	22	23	24	25	26	27	28	29	30
정 답	②	⑤	⑤	①	②	②	③	①	④	③

### [해설]

#### 1. [정 답] ②

[해 설] 제시한 그림에 나오는 사물을 한자로 표현하기

ㄱ : 食(식) 먹다   ㄴ : 跳(도) 뛰다   ㄷ : 飲(음) 마시다   ㄹ : 舞(무) 춤추다

#### 2. [정 답] ③

[해 설] 한자의 독음 알기

ㄱ : 各(각) 각각   ㄴ : 落(락) 떨어지다   ㄷ : 洛(락) 강 이름   ㄹ : 客(객) 손님

#### 3. [정 답] ⑤

[해 설] 조건을 만족하는 한자 찾기

○ 溫(따뜻할 온; 水-총13획)

① 畵(그림 화; 田-총12획)

② 盟(맹세할 맹; 皿-총13획)

③ 監(보다 감; 皿-총14획)

④ 愚(어리석을 우; 心-총13획)

⑤ 感(느낄 감; 心-총13획) \* 쓰임 : 感情(감정), 好感(호감)

4. [정 답] ④

[해 설] 형성자의 독음

- o 人+寺=侍(모실 시)    o 木+不=杯(잔 배)

5. [정 답] ①

[해 설] 성어의 활용과 적용

- ① 小貪大失(소탐대실) :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음  
② 近墨者黑(근묵자흑) :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사귀면 물들기 쉽다는 말  
③ 漁父之利(어부지리) : 쌍방이 다투는 틈을 타서 제삼자가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득  
④ 孤掌難鳴(고장난명) : 외손뼉은 울리기 어렵다는 뜻으로 1)혼자서는 일을 이루기가 어려움.  
2)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  
⑤ 緣木求魚(연목구어) :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듯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함

6. [정 답] ①

[해 설] 실용한자의 활용

- o 低炭素(저탄소) 녹색성장  
① 低(낮을 저) ② 底(밑 저) ③ 抵(거스를 저) ④ 著(지을 저) ⑤ 諸(어조사 저)

7. [정 답] ⑤

[해 설] 한자어의 활용

- ① 奉仕(봉사) ② 清廉(청렴) ③ 誠實(성실) ④ 勤勉(근면) ⑤ 讓步(양보)

8. [정 답] ⑤

[해 설] 사자성어 퍼즐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

- o 錦衣還鄉(금의환향) : 출세를 하고 고향에 돌아옴  
o 錦上添花(금상첨화) : 아름다운 데에 아름다운 것이 더해짐  
① 金(쇠 금) ② 絹(명주 견) ③ 綿(이어질 면) ④ 線(줄 선) ⑤ 錦(비단 금)

9. [정 답] ④

[해 설] 동음이의 한자어의 활용

- o 素材(소재) : 예술작품의 바탕이 되는 재료  
o 所在(소재) : 있는 곳

10. [정 답] ④

[해 설] 문장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빠진 한자 유추하기

- 窮則獨善其身(궁즉독선기신) : 곤궁하면 그 자신을 홀로 선하게 되고,
  - 達則兼善天下(달즉겸선천하) : 영달하면 천하를 아울러 선하게 한다.
- ① 只(다만 지) ② 自(스스로 자) ③ 使(하여금 사) ⑤ 唯(오직 유)

11. [정 답] ③

[해 설] 시의 내용을 성어로 이해하기

- ① 三遷之教(삼천지교) :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 집을 세 번 옮긴 일
- ② 仁者無敵(인자무적) :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음.
- ③ 風樹之歎(풍수지탄) : 효도하고자 할 때에 이미 부모를 여의고 효행을 다하지 못하는 자식의 슬픔
- ④ 首丘初心(수구초심) :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로 향한다는 뜻으로,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
- ⑤ 結草報恩(결초보은) : 죽어 혼령이 되어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.

12. [정 답] ④

[해 설] 일상대화의 내용에 한자어 활용하기

- ① 始務式(시무식) : 연초에 근무를 시작할 때 행하는 의식
- ② 施賞式(시상식) : 상을 주는 의식 또는 행사
- ③ 開所式(개소식) : 개소할 때 행하는 의식
- ④ 除幕式(제막식) : 동상이나 기념비 따위를 완공하고 행하는 의식
- ⑤ 着工式(착공식) :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공사를 시작할 때 하는 의식

13. [정 답] ④

[해 설] 글의 중심내용을 격언으로 이해하기

- ① 天無口, 使人言 : 하늘은 입이 없어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한다
- ② 出必告, 反必面 :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부모에게 가는 곳을 아뢰고, 밖에 나갔다 돌아 왔을 때 반드시 부모를 뵈고 귀가했음을 알림
- ③ 德不孤, 必有隣 : 덕은 외롭지 않아, 반드시 이웃이 있다
- ④ 滿招損, 謙受益 : 교만하면 손해를 초래하고, 겸손하면 이익을 받음
- ⑤ 養子息, 知親力 : 자식을 길러보아야 부모님의 힘을 안다

14. [정 답] ③

[해 설] 제시된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성어의 뜻 찾기

- ① 鼯鼻三尺(오비삼척) : 내 코가 석자라는 뜻으로, 내 사정이 급해서 남을 돌볼 겨를이 없음을 이르는 말
- ② 眼下無人(안하무인) :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, 방자하고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
- ③ 三人成虎(삼인성호) :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듣는다는 말
- ④ 宿虎衝鼻(숙호충비) : 자는 범의 코를 찌른다는 뜻으로, 자기 스스로 불리(不利)를 자초함의 비유
- ⑤ 大器晚成(대기만성) :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,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말

15. [정 답] ②

[해 설] 글의 설명에 알맞은 그림 찾기

- o 가득 차 있는 것이 공기인데 그것을 움직이게 하면 바람이 된다. 공기를 움직이게 하는 재주가 있는데 말아서(접어서) 품에 넣으면 고요하지만 바람은 그 속에 있다.

<16~17번 전문 해석>

맹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, 천하에 왕노릇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.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며, 형제가 ㉠무고(無故 : 사고 없이 평안함)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,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으며, 아래로는 인간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,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. 군자에게는 ㉡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, 천하에 왕노릇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.”

16. [정 답] ①

[해 설] 문장에서의 어구풀이

- o 無故(무고) : 1) 아무런 까닭이 없음 2) 아무 탈(사고) 없이 평안함

17. [정 답] ②

[해 설] 글의 전체 내용의 해석과 이해

<18~20번 전문 해석>

이공수가 북경㉠으로부터 돌아오고 있었다. 도중에 말이 지쳤는데, 곡식이 사람이 없는 들㉡에 쌓여 있어서 하인이 그것을 취하여 말에게 먹였다. 공수가 그 당시의 값으로 ㉢곡식이 쌓여

있는 곳에 베를 남겨 두었다. 하인이 말하기를, “남들이 틀림없이 가져갈 터인데 어찌 유익하겠습니까?” 하니, 공수가, “나도 진실로 그것을 안다. 하지만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뒤에라야 내 마음이 (㉔편해질) 수 있다.” 라고 말했다.

18. [정 답] ③

[해 설] 문장에서의 한자의 풀이

○ ㉑自(~로부터) ㉒于(~에)

19. [정 답] ①

[해 설] 문장의 해석 순서

○ 곡식이(粟) 쌓여 있는(積) 곳(中)에(于) 베를(布) 남겨 두었다(留)

20. [정 답] ①

[해 설] 문맥상 빠진 글자 유추하기

① 安(편안할 안) ② 哀(슬플 애) ③ 怒(성낼 노) ④ 懼(두려워할 구) ⑤ 驚(놀랄 경)

<21~22번 전문 해석>

왕규가 말하기를, “닭과 오리는 가축이니 날 수 없지만, 그 나머지 ㉑들새는 모두 날 수 있다.”라고 하였다. ㉒내가 보니 집오리를 들의 물에 풀어 놓으니 오래 되면 날 수 있었다. 대개 가축이 날 수 없는 것은 마시고 쪼아 먹는 것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.

21. [정 답] ②

[해 설] 한자어의 짜임

▶ 野禽(야금) : 들새 - 수식

① 希望(희망) : 병렬      ② 空冊(공책) : 수식      ③ 聖賢(성현) : 병렬  
④ 雌雄(자웅) : 병렬      ⑤ 霜降(상강) : 주술

22. [정 답] ⑤

[해 설] 글의 전체 내용 이해

<23~24번 전문 해석>

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가르치지 않으면,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, 비록 가르치더라도 엄하게 하지 않으면, 이 또한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. 부모가 가르치는데도 배우지 않는다면, 이는 자식이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, 비록 배운다 하더라도 부지런

히 하지 않으면, 이것 역시 그 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. 그러므로 자식을 기르면 반드시 가르쳐야하고, ㉠가르치면 반드시 엄하게 해야 하니, 엄하게 하면 반드시 부지런히 하고, 부지런히 하면 반드시 ㉡이루리라).

23. [정 답] ㉡

[해 설] 문장의 내용을 사자성어로 이해하기

- ㉠ 不恥下問(불치하문) :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음.
- ㉡ 手不釋卷(수불석권) :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늘 글을 읽음.
- ㉢ 敎學相長(교학상장) :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은 서로 자기의 학업을 증진하게 함.
- ㉣ 螢雪之功(형설지공) : 고생을 하면서 공부하여 얻은 보람.
- ㉤ 斷機之戒(단기지계) : 맹자가 수학 도중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가 베틀의 실을 끊어 훈계하였다는 데서,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둠은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과 같다는 말.

24. [정 답] ㉠

[해 설] 문맥상 빠진 글자 유추하기

- ㉠ 成(이룰 성) ㉡ 衰(쇠할 쇠) ㉢ 退(물러날 퇴) ㉣ 緩(느릴 완) ㉤ 遲(늦을 지)

<25~27번 전문 해석>

효녀 지은이 <중략> 가난하여 고생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부잣집에 가서 몸을 팔아 종이 ㉠되기를 청하여 쌀 10여 ㉡석을 얻었다. 하루 종일 그 집에서 일을 해주고 날이 저물면 밥을 지어 가지고 돌아와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. 이렇게 3, 4일이 지나자 그의 어머니가 딸에게 이르기를, “㉢지난번 밥은 거칠지만 달더니 지금은 밥이 비록 좋으나 맛이 옛날만 못하고, 간과 ㉣심장을 마치 칼날로 찌르는 듯하니 이것이 웬일이냐?”라고 하였다. 딸이 ㉤사실대로 고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, “나 때문에 너를 종이 되게 하였으니 빨리 죽느니만 못하구나.”라고 하였다.

25. [정 답] ㉡

[해 설] 한자어의 독음

- 困苦(곤고) : 곤란하고 괴로움. 가난하여 고생함.

26. [정 답] ㉡

[해 설] 문장에서의 한자어의 풀이

- 石(석) 1.돌 2.석(용량을 재는 단위. 1말의 10곱)

27. [정 답] ③

[해 설] 통의자 찾기

o 如(여) 같다 = 若(약)

<28~30번 전문 해석>

(가) 봄에 한 알의 곡식을 심어 가을에 만 알 걷게 되었네.

온 사방 묵힌 밭 없건만 농부는 오히려 굶주려 죽는구나.

(나) 눈 위의 달빛은 전 왕조의 빛이고(빛 그대로이고)

차가운 종소리도 옛 나라의 소리라네.(소리 그대로라네)

시름에 겨워 남쪽 누각에 홀로 서 있으니

남아 있는 옛 성곽에 저녁 연기 피어 오르네.

28. [정 답] ①

[해 설] 한시의 형식과 내용 및 이해

o (가)에는 청각적 심상이 없다

o (나)의 형식은 오언절구이다

29. [정 답] ④

[해 설] 한시의 내용 이해

o (가)는 착취당하는 농부의 참혹한 실상을 보여주는 시이다.

30. [정 답] ③

[해 설] 한시의 시상전개를 삽화로 표현하기